

#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



이장범 / 안양대학교 구라병원 내분비 내과

며칠 전 원고청탁을 받고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로 몇해 전 병원을 찾았던 안타까운 환자를 생각해 보았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지독한 농성으로 전국 각 병원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때였다.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한 눈을 뜨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그 지독하게 힘들었던 인턴 레지던트 시절도 다 지나고, 서운하고 위태롭던 전임의 시절도 다 지났는데, 왜 당직실에서 잠을 잤지...'

데모나 파업이라는 말은 다른 직종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들은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하여 일어섰던 것이었다. 그러니 인턴과 수련의는 없고 응급실의 당직 교수님이 조교수인 나를 찾고 있었다.

전화 수화기에서 들리는 피곤에 지친 당직 교수님의 몇 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응급실로 달려 내려갔다. 1층 대합실에 걸린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환자를 본 게 오전 4시 였는데 하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응급실로 들어서면서 마침 추석 연휴 첫날이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당직하시는 교수님의 굳은 얼굴을 본 순간, 즐거움은 무거운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교수 미안해 곤히 자는데, 37세 젊은 아줌만데 안됐어 혼수상태이고, 응급검사결과는..."

다른 혼수가 올만한 검사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1년 전 신체검사에서 당뇨병을 알았지만 무시하고 살고 있는 환자였다.

환자의 혈당은 정맥혈에서 870mg/dl로 심한 고혈당 상태였다. 간호사에게 생체징후를 알려 달라고 했다. 체온은 섭씨 39도였고, 혈압은 80/50 mmHg로 위험하게 낮은 혈압 상태였고, 맥박은 110회로 빠르게 뛰고 있었으며, 호흡이 좋지 않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일단 산소를 주입하게 하고 간호사에게 소변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시간당 20cc로 소변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했다. 환자에게 투입되고 있던 생리식염수 주사를 최대한으로 틀고, 간호사에게 인슐린을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정신없이 간호사에게 지시를 하고 주사를 한 후 보호자를 찾았다. 새카맣게 질려버린 남편은 체격이 왜소해서 그런지 더욱 안돼 보였다. 하지만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도 그 남편은 “어린 애가 둘이 있어요, 아직 학교도 안 갔고, 살려주세요”하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여서 살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그 가족들도 준비를 해야하므로, 환자의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응급 처치가 끝나자 환자를 중환자실로 올려보내고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그 때 아내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은 부산에 계시는 장모님의 환갑 잔치가 있는 날이라 다른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해 하루 쉬기로 한 날이었다. 오후 비행기니까 환자상태만 호전을 보이면 당직 교수님에게 인계를 하고 하룻저녁이라도 꼭 함께 고향을 다녀오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환자는 추석연휴 72시간을 중환자실에서 나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밖에 없었다. 담당교수가 24시간 직접 모든 것을 치료해 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치료의 하나였다.

그 후로도 파업상황은 정부의 무성의로 좋아지지 않았고, 그 환자는 2개월 동안 병실에서 나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퇴원이 가까워 오면서 모든 장기의 기능은 정상을 되찾았고 나는, 나의 둘 지난 어린 딸을 생각하면서, 그 환자의 어린 두 아이가 친 엄마의 사랑을 계속 받으며 클 수 있다는 보람에 가슴이 뭉클했다. 또 처가집에 할말이 생겼다는 사실도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런 보람은 또 다른 걱정으로 그 환자의 퇴원 며칠전 찾아오기 시작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당뇨병을 치료해서 없앨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었다. 당뇨병을 없애지 못한다면, 인슐린 주사만이라도 맞지 않고 살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당뇨병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 환자에게 인슐린이 현재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환자와 남편의 눈동자는 이미 의사의 눈동자를 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일후 퇴원날, 그 환자와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병원 문을 총총히 나섰다. 

- 다음달에 이어집니다 -